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이 은우(장신대) 신명기의 제의개혁 요구와 왕들의 개혁 132
본 연구의 목적은 신명기와 열왕기의 제의 개혁 본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진술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과연 이 진술이 신명기 사가의 진술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출애굽기와 사사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Lee, Eun-Woo Requirement of Cult Reform in Deuteronomy and
Kings' Reform 132

신명기의 제의 개혁 요구와 왕들의 개혁

이 은우 | 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마틴 노트(M. Noth)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제의 개혁을 포함한 왕들의 치세에 대한 공식 문구는 소위 신명기 사가가 전통적인 자료를 스스로 구성한 것으로 보았다.¹⁾ 노트를 계승하는 많은 학자도 개별 왕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치세에 대한 공식 문구가 소위 신명기 사가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²⁾ 롱(B. O. Long)과 홉스(T. R. Hobbs)는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소위 신명기 사가의 언어와 연

1)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t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Halle: Niemeyer [1943]), E.W. Nicholson (옮김),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마틴 노트, 「전승사적 연구들」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노트의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에 대한 이론은 그를 계승한 다양한 학자, 학파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명기 사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다양한 비판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자의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역사 연구: 마틴 노트와 로버트 풀진 이론의 비판적 고찰,” 「구약논단」 26집(2007년 12월), 30-52쪽;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2008년 9월), 67-86쪽을 참고하라.

2) B. O. Long, *2 Kings*(FOTL 10), (Michigan: Grand Rapids, 1991), 194쪽; T. R. Hobbs, *2 Kings*(WBC 13), (Waco, TX: Word Books, 1985), 252쪽; C. Seow,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Kings,” L. E. Keck(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260쪽; H. Hoffmann, *Reform und Reformen. Untersuchungen zu einem Grundthema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schreibung*(ATHANT, 66), (Zuerich: Theologischer Verlag, 1980).

결한다. 세오(C. Seow)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신명기적인 율법에 충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열왕기의 개혁 용어에서 신명기 사가의 요소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옹호자는 호프만(H. Hoffmann)이다. 그는 신명기 사가의 설화에 나타난 제의 개혁이라는 주제 연구에 몰두하는데, 마틴 노트가 말하는 옛 자료의 편집자라기보다는 창조적 저자로서의 신명기 사가를 고려한다. 호프만은 소위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가 포로 귀환 초기에 작업을 한 단일 저자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의와 제의 개혁의 주제들이 그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원칙이었다고 주장한다.³⁾ 게다가 호프만은 그의 분석의 결론에서 열왕기에 나타나는 제의적 어구와 용어들의 많은 부분이 신명기 사가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열왕기의 분열 왕국에 관한 이야기에서 주요 골격을 이루는 제의 개혁 본문들을 신명기에 나타나는 제의 개혁 본문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진술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과연 이 진술이 신명기 사가의 진술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제의 개혁 진술과 사사기와 역대기에 나타나는 평행 본문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2. 신명기에 나타난 이방 제의 물질 타파에 대한 진술들

신 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할 것을 명하신다. 이스라엘이 야훼께 전적으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진멸해야 할 가나안 토착민들과 관련된 용어는 **אֲרָם** (헤렘/진멸)이다.⁴⁾ 노트는 이 용어와 원주민의 진멸 개념이 소위 신명기 사가의 편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⁵⁾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삶과 종교와 사랑의 영역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를

3) H. Hoffmann, *윗글*.

4) **אֲרָם**은 구약성경에 80번 나타나는데 신명기에서 9번 사용된다(신 2: 34; 3: 6(2번); 7: 2, 26(2번); 13: 16, 18; 20: 17).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G. Mitchell, *Together in the Land: A Reading of the Book of Joshua* (JSOTS 134), (Sheffield: JSOT Press, 1993), 51-82쪽을 참조하라.

5) M. Noth, *윗글*(1943), 36쪽; idem, *Das Buch Josua* (HAT 1/7), (Tübingen: J. C. B. Mohr, 1953²).

뺏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계약을 맺거나 통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הרם**(헤렘/진멸)은 이교적 위협에서의 구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방 제의 요소의 배제와 이방 제의 물질의 파괴와 관련이 깊다.⁶⁾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신 7: 5).

여기에 사용된 명사들은 **מזבח**(미즈베아흐/제단), **מצבה**(마체바/주상), **אשרה**(아쉐라/아세라), **פסיל**(피실/조각한 우상)이며, 동사들은 **נתץ**(나타츠/헐다), **שבב**(쇄바르/깨뜨리다), **גרע**(가다/찍다), **שרף**(사라프/불사르다)이다.

신 12장 1-7절도 가나안의 상징물을 사용한 예배 관습을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야훼 예배가 저항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교도의 요소로 간주한다.⁷⁾ 신 12장 3절 역시 이것들을 파괴할 것을 강조한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신 12: 3).⁸⁾

여기에 사용된 명사들은 **מזבח**(미즈베아흐/제단), **מצבה**(마체바/주상), **אשרה**(아쉐라/아세라), **פסיל**(피실/조각한 우상)이며, 사용된 동사들은 **נתץ**(나타츠/헐다), **שבב**(쇄바르/깨뜨리다), **שר**(사라프/불사르다), **גרע**(가다/찍다), **אבד**(아바드/멸하다)이다.⁹⁾

신 12장 3절에만 ‘멸하다’(אבד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¹⁰⁾ 신 7장 5절과 12장 3절 사이에 명사와 동사가 거의 일치하는

6) G. Mitchell, *위글*, 56-57쪽.

7) 신 12장에는 **הרם**이 나타나지 않는다.

8) 전기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산당을 의미하는 **במה**(바마/산당)를 사용하지 않고 **קום ההוא** **הם**(하마쿰 하후/그 곳)를 사용하는 것도 신명기의 특징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는 J. G. McConville, *Deuteronomy* (AOTC 5), (Nottingham: Inter Varsity Press, 2002), 218쪽.

9) LXX에는 ‘찍다’(גרע)가 ‘불사르다’(שרף) 앞에 나온다. LXX 신 12: 3은 신 7: 5와 그 어순이 일치한다.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본문에 공통으로 나오는 명사와 동사들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¹¹⁾

1) 명사

(1) מִצְבֵּאִים(미즈베아흐/제단)

신을 위해 만든 단을 의미하는데, 출 20장 24절에서는 야훼를 위해 흙으로 만든 단으로 나오고, 돌로 만든 단은 출 20장 25절, 출 27장 5절에서 나오며, 신 27장 5절, 수 8장 31절, 사 27장 9절에서는 야훼를 위해 돌로 만든 단으로, 출 38장 30절, 왕상 16장 14절에서는 야훼를 위해 청동으로 만든 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 7장 5절, 신 12장 3절과 마찬가지로 출 34장 13절, 민 23장 3절, 사 2장 2절, 왕상 16장 32절, 왕하 16장 10절, 왕하 23장 12절에서도 이방 신을 위한 제단들에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22번)와 역대하(14번)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다.

(2) מַצֵּבָה(마체바/주상)

‘세운다’라는 개념에서 온 것으로, 표시, 기념, 혹은 제의적 돌기둥으로 가정할 수 있다.¹²⁾ ‘마체바’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거나 신성한 산을 상징하기도 하며, 신성한 나무에 나타나는 여성 신의 현존을 상징하기도 했다.¹³⁾ 때로는 아세라의 여성 이미지와 결합한 남근으로 묘사되며, 강력한 풍요의 합성체로 여겨지기도 했다.¹⁴⁾ 마체바는 죽은 사람의 장지를 기억하기 위한 표시 기능을 하기도 하고(창 35: 19-20), 개인 혹은 그룹 사이의 합법적/법률적 관계의 조약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며(창 31: 49-52), 국가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되기

10) 이 희학은 **※** 동사가 신명기에서 적들을 진멸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7: 24; 9:3; 11:4), 본문에서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희학, “신명기 12장,” 강 성열 등, 『역사비평주석 신명기』(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292쪽.

11) 넬슨은 신 12: 3을 2절과 4절 사이의 의미를 단절시키는 외래적 요소로 간주한다. R. D. Nelson, *Deuteronomy* (OTL),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59쪽. 그러나 신 12: 2-3절은 이방 제의 요소의 타파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12) 장 대규, “이샤야 6장과 마체바의 의미와 기능연구,” 『구약논단』 29집(2008년 6월), 71쪽.

13) I. Benzinger, *Hebraeische Archaeologie*, (Tuebingen: J. C. B. Mohr, 1907), 322쪽.

14) J. G. McConville, *윗글*, 154쪽.

도 하며(삼상 15: 12, 삼하 18: 18), 신의 현현 장소를 신성화하고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¹⁵⁾ 신 7장 5절과 12장 3절은 다른 신들을 위해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돌기둥을 세운 경우로, 레 26장 1절과 렘 43장 13절도 여기에 속한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행위로 돌을 세운 일도 있는데, 창 28장 12, 22절, 31장 13, 45, 51절, 35장 20절, 삼하 18장 18절 등이 있다.

(3) אֲשֵׁרָה(아세라/아세라)

‘아세라’는 페니키아 가나안 지역에 뿌리를 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우가리트 문헌에는 ‘엘’ 신의 아내로 나온다. 그러나 후대의 문헌에는 바알의 배우자로도 나타나며, 그의 예배와 관련된 나무 목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⁶⁾ 바다의 여신으로도 묘사된 이 여신은 구약성경에 40회 등장하는데,¹⁷⁾ 출 34장 13절, 사 3장 7절, 왕상 18장 19절, 왕하 23장 4절에서는 복수형으로 나타난다.¹⁸⁾ 이 본문에서는 대부분 거의 라스 삼라 문서의 바람과 폭풍의 신이며, 엘과 아세라의 아들인 바알과 관련되어 있다. 총 40회 중 신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3회이며, 나머지 37회는 우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세라가 신의 이름으로 쓰일 때, 이 여신을 섬기는 의식이 이스라엘에서 성행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나온다(사 3: 7, 왕상 18: 19, 왕하 23: 4). 우상의 의미로 기록된 37회 중에서, “제단 곁의 아세라”라고 언급되는 경우는 5회,¹⁹⁾ 그 외에 아세라의 바로 앞에 주상, 제단, 산당 등이 언급되는 경우는 20회²⁰⁾이다. 그러므로 돌로 만들어진 가나안의 종교적 상징물 곁에 아세라가 함께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푸른 나무나 나무 말뚝이 아

15) 장 대규, *윗글*, 71-74쪽.

16)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32쪽.

17) 출 34: 13; 신 7: 5; 12: 3; 16: 21; 사 3: 7; 6: 25, 26, 28, 30; 왕상 14: 15, 23; 15: 13; 16: 33; 17: 10; 18, 19; 왕하 13: 6; 17: 16; 18: 4; 21: 3, 7; 23: 4, 6, 7, 14, 15; 대하 14: 3; 15: 16; 17: 6; 19: 3; 24: 18; 31: 1; 33: 3, 19; 34: 3, 4, 7; 사 17: 8; 27: 9; 렘 17: 2; 미 5: 13[14].

18) S. F. Kenyon, *The Bible and Archaeology*, (London: George G. Harrap & Co. LTD., 1940), 158쪽.

19) 신 16: 21; 사 6: 25, 26, 28, 30.

20) 출 34: 13; 신 7: 5; 12: 3; 왕상 16: 33; 왕하 17: 10; 18: 4; 21: 3; 23: 14, 15; 대하 14: 3; 17: 6; 31: 1; 33: 19; 34: 3, 4, 7; 사 17: 8; 27: 9; 렘 17: 2; 미 5: 13[14].

세라 여신의 현존을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에 예배를 드렸다.²¹⁾ 아세라에게 드리는 예식은 흔히 성적인 의식과 결합하였다.

(4) לִישָׁר(피실/조각한 우상)

신성한 이미지 혹은 우상을 말한다. 구약성경에서 모두 23회 사용되었는데, 율법서 안에서는 신 7장 5절, 25절과 신 12장 3절에 3회 사용되었을 뿐이며, 사 3장 19절과 26절, 왕하 17장 41절, 대하 33장 19절과 22절, 34장 3절과 7절, 시 78편 58절을 제외하면 모두 예언서에서 사용된다. 왕하 17장 41절, 사 10장 10절, 42장 8절, 렘 8장 19절에서는 <헤벨>과 함께 사용되었다.²²⁾

2) 동사

(1) נָתַח(나타츠/헐다)

목적어와 함께 쓰여 '파괴하다, 부수다, 헐다'로 해석된다. 신 7장 5절과 12장 3절처럼 제단을 허는 의미로 사용된 본문은 출 34장 13절, 사 2장 2절, 6장 30절, 왕하 11장 18절, 23장 12, 15절 등이 있다. 그 밖에 사 6장 28절, 30절 이하, 8장 17절, 대하 33장 3절, 시 58편 7절 등에 사용되었다.

(2) כָּבַשׁ(쇄바르/깨뜨리다)

'깨다, 부수다, 파괴하다'의 뜻으로 창 12장 46절, 민 9장 12절에서는 '뼈를 꺾는다'라는 의미로, 왕상 13장 26, 28절에서는 '사자에 의해 사람의 몸이 찢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 7장 5절과 12장 3절에서는 '조각 내고자 부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왕하 14장 3절, 31장 1절 등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3) שָׂרַף(사라프/불사르다)

21) 아세라가 바알 예배에 대해 아훼 예배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아세라 여신이 가나안의 엘(티) 신을 계승한 아훼의 배우자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S. M. Olyan, *Ashera and the Cult of Yahweh in Israel* (SBLMS 34) (Atlanta, GA: Scholars, 1988); J. G. McConville, *윗글*, 154쪽.

22) HALOT, 948쪽

‘불태우다’라는 뜻으로 뼈를 태우는 행위(왕상 13: 2), 종교적으로 어린아이를 불태우는 행위(신 12: 31), 성읍을 불태우는 행위(신 13: 17), 피부에 뜸을 뜨는 행위(레 13: 55), 벽돌을 견고히 굽는 행위(창 11: 3) 등에 사용된다. 신 12장 3절과 같은 ‘아세라를 불사르다’라는 표현은 왕하 23장 15절에만 나타난다.

(4) גרע(가다/찍다)

팔(삼상 2: 32)이나 뿔(애 2: 3)이나 나무(속 11: 10, 14)를 ‘자르다, 찍다’의 의미가 있으며, 신 7장 5절이나 12장 3절과 같은 Piel 형태로는 사 45장 2절, 시 75편 11절, 107편 16절, 대하 14장 2절, 31장 1절, 34장 4, 7절에 쓰였다. גרע(가다/찍다)가 신 7장 5절처럼 ‘아세라’의 복수형인 אַשְׁרֵיִם(아쉐림/아세라들)을 목적으로 갖는 본문은 대하 14장 2절, 31장 1절이 있으며, 다른 금속 재료를 목적으로 갖는 본문은 신 12장 3절, 대하 34장 4, 7절,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 본문은 시 75편 11절이 있다.²³⁾

3.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방 제의 물질 타파에 대한 진술들

이방 종교 제의 물질의 파괴를 다루는 제의 개혁에 대한 진술은 열왕기의 분열 왕국에 대한 진술의 중요한 틀을 이룬다. 소위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로 불리는 열왕기에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에 대한 보고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이방 제의 물질 타파에 대한 진술이 신명기의 진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그의 어머니 마이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אַשְׁרָה)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כרת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שר)(왕상 15: 13, 아사의 개혁 본문)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מזבחה)을 허물고(נתץ)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שבבר)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와의

23) TWOT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왕하 11: 18, 여호야다의 개혁 본문)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מצבה)을 깨뜨리며(שבר) 아세라(אשרה) 목상을 찍으며(כרת)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 단이라 일컬었더라(왕하 18: 4, 히스기야의 개혁 본문)²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מזבח)과 므낫세가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מזבח)을 왕이 다 헐고(נתץ) 거기서 빵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왕하 23: 12, 요시아의 개혁 본문)

왕이 또 석상들(מצבה)을 깨뜨리며(שבר) 아세라(אשרה) 목상들을 찍고(כרת)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왕하 23: 14, 요시아의 개혁 본문)²⁵⁾

위의 본문들에 보면 גרע(가다/찍다) 대신에 כרת(카랏/찍다)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²⁶⁾ 이방 제의 물질의 정화와 관련해 신 7장 5절과 신 12장 3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정한 제단이나 우상을 의미하는 מזבח(미즈베아호/제단), מצבה(마체바/주상), אשרה(아쉐라/아세라) 같은 명사나, 이들을 부수고, 태워 버릴 것을 제안하는 נתץ(나타츠/헐다), שבר(쇄바르/깨뜨리다), שר(사라프/불사르다) 같은 동사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히스기야, 요시아, 아사 같은 왕들의 개혁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자는 열왕기의 이방 제의 타파와 관련된 개혁 진술이 소위 신명기(사가)적인 표현 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여겼다.²⁷⁾ 룡은 히스기야의 개혁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을 신명기

24) 한 동구는 신 18장 4절을 신명기 사가의 산물로 간주하며, 히스기야의 종교 정화의 역사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열왕기하 16-23장 주석-」(서울: 도서출판 B & A, 2007), 64쪽. 그는 히스기야 개혁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보이는 벨하우젠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1898, 1905⁶), 25쪽.

25) 한 동구는 요시아 왕 시절 신명기 개혁 운동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비 신화론이라 주장하는데 오직 한 하나님의 예배는 다른 신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제의적 상징물을 분리시켜 비 신화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세라 여신 숭배 역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에서 배제되었고, 바알 숭배와 함께 우상 숭배로 규탄 당했다는 것이다. 한 동구, *룡*, 164쪽.

26) ע 1 대신에 כרת이 쓰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사가의 언어로 본다.²⁸⁾ 세오는 왕하 18장 4절과 관련해 히스기야를 신명기적인 율법에 충실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호프만은 신명기 사가의 설화에 나타난 제의 개혁이라는 주제 연구에 몰두하는데, 열왕기의 개혁 용어에서 신명기 사가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²⁹⁾ 신 7장 5절과 12장 3절에 사용된 단어들과 위의 열왕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와 사사기와 역대기 본문에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같은 표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것이다.

4. 출애굽기와 사사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이방 제의 타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 7장 5절과 12장 3절에 나타나는 이방 제의 물질 타파에 관한 진술이 열왕기의 제사장 여호야다와 왕들의 제의 개혁 본문에도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 본문이 신명기(사가)적 역사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출애굽기와 사사기와 역대기 본문에도 이들과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방 제의 파괴에 대한 표현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שבב) 그들의 주상을(מצבה) 부수고(출 23: 24)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מזבח) 헐고(נתץ) 그들의 주상을(מצבה) 깨뜨리고(שבב) 그들의 아세라(אשרה) 상을 찍을 지어다(כרת)(출 34: 13)

출 23장 24절과 34장 13절에는 גרע(가다/찍다) 대신에 כרת(카랏/찍다)이 쓰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동사와 명사가 신 7장 5절과 12

27) B. O. Long, 윗글, 194쪽; T. R. Hobbs, 윗글, 252쪽; C. Seow, 윗글, 260쪽.

28) B. O. Long, 윗글, 194쪽.

29) H. Hoffmann, 윗글.

장 3절에 나오는 동사와 일치한다. 유사한 용어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이 관계를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수의 학자는 오경의 첫 네 권에 나타나는 소위 신명기(사가)적인 요소의 본질과 기원에 관심을 집중했다. 신명기의 문체, 언어, 사상과 유사성을 보이는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본문은 출 12장 24-27a절, 13장 3-16절, 20장 1-17절, 23장 20-33절, 32 - 34장이다.³⁰⁾ 노트에 따르면, 이 본문들은 신명기 사가의 문체로 후에 삽입된 것이다.³¹⁾ 그러나 펠리트(L. Perlitt)은 사경에 신명기 사가에 의한 산발적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경 전체 자료를 관통하는 신명기 사가의 편집이 있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말한다.³²⁾ 브레켈만스(C. Brekelmans)와 로핑크(N. F. Lohfink)는 신명기의 언어와 사상과 유사한 창세기-민수기의 본문들을 '원 신명기적'이라고 부르며, 신명기보다 이 본문들의 시기가 더 초기라고 주장한다.³³⁾ 다른 한편에는 사경에 있는 소위 신명기적인 요소를 후대의 야휘스트(Yahwist) 기자가 재작업한 것으로 보거나, D 편집자들에 의한 후기 신명기 사가적 재작업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반 세터스(J. Van Seters)나 블럼(E. Blum)같은 학자들이 있다.³⁴⁾ 이 논쟁에서 사경 안에 신명기(사가)적인 특징을 확정 지을 견고한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전면에서 나타나고 있다.³⁵⁾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명

30) M. Vervenne, "The Question of 'Deuteronomistic' Elements in Genesis to Numbers," in F. Garca Martnez et al. (eds.),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VTSup, 53), (Leiden: Brill, 1994), 254쪽.

31) M. Noth, *윳글*, 28쪽.

32) L. Perlitt, *Bundestheologie in Alten Testament* (WMANT 3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19-22쪽.

33) C. Brekelmans, "Die sogenannten deuteronomischen Elemente in Gen.-Num. Ein Beitrag zur Vorgeschichte des Deuteronomiums," in P. A. H. De Boer (ed.), *Volume du Congr. Geneve 1965* (VTSup, 15) (Leiden: Brill, 1966), 289-299쪽; N. F. Lohfink, "Die Bundesurkunde des Knigs Josiah (Eine Frage an die Deuteronomiumsforchung, 1963)," *Bib* 44, 261-288쪽, 461-498쪽.

34)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4), 355쪽;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and New York, 1990), 164쪽.

35) H. Ausloos, "The Need for Linguistic Criteria in Characterising Biblical Pericopes as Deuteronomistic. A Critical Note to Erhard Blum's Methodology," *JNSL* 23/2 (1997), 47-56쪽; idem, "The Need for a 'Controlling Framework'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sis-Numbers and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Literature," *JNSL* 24/2

기 본문이 출애굽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다수이다. 신명기에서 כרת(카랏/찍다)을 더 강렬한 의미의 גרע(가다/찍다)로 바꾼 것으로 본다.³⁶⁾ 출 23장 24절, 34장 13절과 신 7장 5절, 12장 3절의 제의 타파 용어를 가진 본문들을 살피는 데 중요한 요소는 가나안 예배의 폐지를 강조하는 유사한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⁷⁾ 이 두 책 안에서 이방 제의 타파를 기술하는 용어를 포함한 이 단락들의 외적인 측면 역시 상당히 유사하다. 소위 신명기 사가적 편집자들이 추방된 가나안 인들에 의해 행해지던 폐지되어야 할 제의 규범들을 이스라엘에 심어 놓았다는 레빈슨(B. M. Levinson)의 사상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제의 철폐 용어들이 왕정 시대 이야기의 문학적 맥락과 관련이 깊다는 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³⁸⁾ 그러나 이들 본문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가설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단지 본문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 본문의 구성 양식은 연설의 형태를 하고 있다: 출 23장 24절, 34장 13절(하나님의 말씀), 신 7장 5절, 12장 3절(모세의 연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진술은 제의 타파에 대한 용어들이 과거를 기술하는 이야기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열왕기의 개혁 진술과는 다르다.

2)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방 제의 타파에 대한 표현들

이방 제의 물질 파괴와 관련된 어휘가 기드온 이야기(삿 6: 26, 28, 30)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 대로 한 제단(מזבח)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כרת) 아세라(אשרה)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삿 6: 26)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מזבח)이 파괴되었으며(נתץ) 그 아세라가(אשרה) 찍혔고(כרת) 새로

(1998), 77-89쪽.

36) R. D. Nelson, *읽기*, 100쪽.

37) E. Nielsen, *Deuteronomium* (HAT, 1/6; Tübingen: Mohr Siebeck, 1995), 135쪽.

38) B.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48쪽.

쌓은 제단 위에서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삿 6: 28)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מִזְבֵּחַ)을 파괴하고(נִתַּן) 그 결의 아세라(אֲשֵׁרָה)를 찍었음(כָּרַת)이니라 하니(삿 6: 3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גָּרַע(가다/찍다)대신에 כָּרַת(카랏/찍다)을 쓰고 있긴 하지만, מִזְבֵּחַ(미즈베아흐/제단), אֲשֵׁרָה(아쉐라/아세라), נִתַּן(나타츠/헐다)는 신 7장 5절과 12장 3절에서도 사용된 단어들이다. 물론 호프만은 כָּרַת(카랏/찍다) 역시 신명기 사가의 용어라고 주장한다.³⁹⁾ 반 세터스는 기드온 이야기 안에 신명기 사가의 틀이 철저히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디이트리히(W. Dietrich)와 페이올라(T. Veijola)는 이 이야기를 DtrN의 작품으로 간주한다.⁴¹⁾ 그러나 에이니켈은 삿 6장 25-32절은 왕상 18장 20-40절의 엘리야 이야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⁴²⁾ 그는 호프만과 달리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는 열왕기의 제의 개혁 진술과 같은 저자/편집 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⁴³⁾ 게다가, 일부 학자들은 삿 6-8장의 기드온 토막이야기와 다른 성서 전승 사이의 많은 연결점을 관찰하고, 이 이야기의 후대성을 제안한다. 이들의 결론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왕정 시대 이야기의 개혁 진술에서 나타난 것을 기드온 이야기에서 수용해 제의 타파에 대한 용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사가가 기드온 이야기의 편집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드온 이야기가 신명기 사가의 틀 안에 놓여 있을 만큼 후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⁴⁴⁾ 게다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כָּרַת(카랏/찍다)은 신명기

39) Hoffmann, *위글*, 344쪽.

40) J. Van Seters,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41) T. Veijola, *Die ewige Dynastie. David und die Entstehung seiner Dynastie nach der deuteronomistischen Darstellung* (STAT.AASF 193),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75).

42)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TS, 33), (Leiden: Brill, 1996), 252쪽.

43) E. Eynikel, *위글*, 252-53쪽.

44) A. G. Auld, *Samuel at the Threshold: Selected Works of Graeme Auld* (SOTS), (Burlington: Ashgate, 2004), 67쪽.

의 평행 본문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출 23장 24절과 34장 13절에서 사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계 되겠지만, 역대기의 평행 본문에서 더 빈번히 사용된다. 단순히 신명기 사가의 단어라 말할 수 없다.

3) 역대기에 나타난 이방 제의 타파에 대한 표현들

이방 제의 물질들의 파괴를 다루는 제의 개혁에 대한 진술들은 열왕기 뿐 아니라 역대기에서도 분열 왕국에 대한 진술의 중요한 틀을 이룬다. 역대기의 이방 제의 물질의 제거를 묘사하는 본문들은 유다 왕들의 개혁에 관한 열왕기의 보도와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열왕기의 왕들의 개혁에 대한 보도의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더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אָשֶׁרָה)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어머니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כרתה) 빵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שר)(대하 15: 16, 아사의 개혁 본문)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מִזְבֵּחַ)을 부수고(נתין)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שבֵר) 그 제단(מִזְבֵּחַ)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맞단을 죽이니라(대하 23: 17, 여호야다의 개혁 본문)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מַצֵּבֹת) 깨뜨리며(שבֵר) 아세라 목상들(אֲשֵׁרִים)을 찢으며(גרע)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מִזְבֵּחַ)을 제거하여(נתין)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점으로 돌아갔더라(대하 31: 1, 히스기야의 개혁 본문)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מִזְבֵּחַ)을 헐었으며(נתין) 왕이 또 그 제단 앞에 높이 달린 태양 상들을 찢고(גרע)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빵아(שבֵר)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대하 34 :4, 요시

야의 개혁 본문)

제단들을(מזבחה) 허물며(נתץ) 아세라 목상들(אשרים)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뺏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עגרו)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대하 34: 7, 요시아의 개혁 본문)

이방 제의 물질의 파괴를 묘사하는 역대기의 본문 역시 신 7장 5절과 12장 3절에 나타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열왕기의 평행 본문보다 더 신명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열왕기에서는 גרע(가다/찍다)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כרת(카랏/찍다)을 사용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신명기를 따라 עגרע를 사용한다. 열왕기에서 כרת이 사용된 맥락에 역대기에서는 עגרע(왕하 18: 4/대하 31: 1, 왕하 23: 14/대하 34: 4, 7)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두 단어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왕상 15장 13절, 대하 15장 16절에서는 כרת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신명기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역대기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역대기 본문이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역대기에 신명기 사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위 신명기(사가)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 제의 개혁과 관련된 특징적인 언어가 역대기에도 빈번히 사용되는 언어로, 아사의 개혁 진술이나(대하 14: 2), 히스기야의 제의 정책 본문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대하 31: 1). 이 역대기에 더 빈번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제단 파괴에 대한 용어들을 역대기가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상의 신명기 사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구성 가능한 평행 본문 중 공통된 자료에 나타난 직접적인 개혁 진술에 더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⁴⁵⁾

5. 결론

이방 제의 물질의 파괴를 명령하는 신 7장 5절과 12장 3절의 제의 개

45) J. G. Eichhorn,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3 vols.), (Leipzig: Weidmanns, Erben und Reich, 1787), 606-56쪽과 이 은우, *윳글*(2008), 67-86쪽을 참고하라.

혁 진술과 열왕기, 출애굽기, 사사기, 역대기에 나타나는 제의 개혁 진술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음 몇 가지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열왕기의 이방 제의 물질 타파 본문은 용어의 사용에서 신명기의 제의 개혁 본문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 신명기 사가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와 역대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다소 희박하게 한다. 노트, 펠릿, 브레켈만스, 로핑크, 반 세터스, 블럼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표현을 신명기 사가의 손길과 연결하려 하지만,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기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역대기에 나타나는 제의 개혁 본문에 대한 설명도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역대기가 단순히 신명기 사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제의 개혁과 관련된 용어는 오히려 역대기와 관련이 더 깊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제의 물질 타파와 관련된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 본문의 관계는 역대기가 신명기와 맺는 관계보다 더 밀접해 보인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이방 제의 물질 타파 본문도 신명기 사가의 맥락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עָרַב**와 **כָּרַת** 동사의 관계는 이런 주장을 더 지지해 준다. 신명기에서 사용하는 동사 **עָרַב**를 흔히 신명기 사가의 본문이라고 하는 열왕기와 사사기 본문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역대기 본문이 이 단어를 사용한다. 출애굽기와 열왕기와 사사기는 **כָּרַת**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 사용에서 신명기는 역대기와 일치하며, 출애굽기는 사사기, 열왕기와 일치한다. 적어도 두 동사의 사용 문제에서 신명기 사가와 이 본문들을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가설이거나 비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유사한 이방 제의 타파에 대한 표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방 제의 물질 타파에 대한 본문이 출애굽기는 하나님 말씀의 형태로 되어 있고, 신명기는 모세의 연설 형태로 되어 있다. 반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 본문은 서로 제의 타파에 대한 진술을 과거를 기술하는 이야기체 형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신적 명령 형태, 신명기에 나타나는 지도자의 연설 형태로 기술된 이방제의 물질 타파 본문과 과거 진술 이야기체 형식으로 기술된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방 제의 타파 본문 사이에 어느 본문이 어느 본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

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신명기와 열왕기의 이방 제의 타파 본문 사이의 관계는 다른 본문들 사이의 관계보다 멀어 보인다는 것이며, 열왕기의 제의 타파 본문을 신명기 사가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열왕기의 제의 타파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들은 신명기 사가의 작품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표현들(출애굽기,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가 공유하는)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표현을 단순히 포로 시대 혹은 포로 이후의 신명기 사가의 작품과 연결하려는 것은 이들 표현이 나타나는 다양한 본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모자란 단순한 범 신명기주의 혹은 범 바벨론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강 성열 들, 「역사비평주석 신명기」 (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 이 은우,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역사 연구: 마틴 노트와 로버트 폴진 이론의 비판적 고찰,” 「구약논단」 26집(2007년 12월), 30-52쪽.
- _____,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2008년 9월), 67-86쪽.
- 장 대규, “이사야 6장과 마체바의 의미와 기능연구,” 「구약논단」 28집(2008년 6월), 67-86쪽.
-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열왕기하 16-23장 주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7).
- Auld, A. G., *Joshua, Moses and the land: Tetrateuch - Pentateuch - Hexateuch in a Generation of Study Since 1938*, (Edinburgh: T&T Clark, 1980).
- _____, “Solomo und die Deuteronomisten eine Zukunftsvision?” *TZ* 48(1992), 345-355쪽.
- _____, *Kings Without Privilege: David and Moses in the Story of the Bible's Kings*, (Edinburgh: T&T Clark, 1994).
- _____, *Joshua Retold: Synoptic Perspectives*, (Edinburgh: T&T Clark, 1998a).
- _____, “Former Prophets,” S. L. McKenzie/W. P. Graham (eds), *The Hebrew Bibl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8b), 53-68쪽.
- _____, *Samuel at the Threshold: Selected Works of Graeme Auld*, (SOTS), (Burlington: Ashgate, 2004).
- _____, *Joshua: Jesus Son of Naue in Codex Vaticanus* (Septuagint Commentary Series), (Leiden/Boston: Brill, 2005).
- _____, *A Commentary of the book of Joshua* (ICC, 출판예정).
- _____, *A Commentary of the book of Samuel* (OTL, 출판예정).
- Ausloos, H., “The Need for Linguistic Criteria in Characterising Biblical

- Pericopes as Deuteronomistic. A Critical Note to Erhard Blum's Methodology," *JNSL* 23/2 (1997), 47-56쪽.
- _____, "The Need for a 'Controlling Framework'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sis-Numbers and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Literature," *JNSL* 24/2 (1998), 77-89쪽.
- Bendavid, 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 Benzinger, I., *Hebraeische Archæologie*, (Tuebingen: J. C. B. Mohr, 1907).
- Blum, E.,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and New York, 1990).
- Brekelmans, C., "Die sogenannten deuteronomischen Elemente in Gen.-Num. Ein Beitrag zur Vorgeschichte des Deuteronomiums," P. A. H. De Boer (ed.), *Volume du Congr. Geneve 1965* (VTS 15), (Leiden: Brill, 1966), 289-299쪽.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Eichhorn, J. 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3 vols.), (Leipzig: Weidmanns, Erben und Reich, 1787).
- Endres, J. C./W. R. Millar/J. B. Burns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8).
- Eynikel, E.,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TS 33), (Leiden: Brill, 1996).
- Guillaume, P., *Waiting for Josiah: The Judges* (JSOTSup 385), (London/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Hobbs, T. R., *2 Kings* (WBC 13), (Waco, TX: Word Books, 1985).
- Hoffmann, H., *Reform und Reformen. Untersuchungen zu einem Grundthema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schreibung* (AThANT 66),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0).
- Japhet, S.,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BEATAJ 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9, 1997²).
- Kegler, J./M. Augustin,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BEATAJ 1),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4, 19912).
- Kenyon, S. F., *The Bible and Archaeology*, (London: George G. Harrap & Co. LTD., 1940).
- Levinson, B. M.,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Lohfink, N. F., "Die Bundesurkunde des Knigs Josiah (Eine Frage an die Deuteronomiumsforchung, 1963)," *Bib* 44, 261-288, 461-498쪽.
- Long, B. O., *2 Kings* (FOTL 10), (Michigan: Grand Rapids, 1991).
- McConville, J. G.,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in Modern Scholarship," *Themelios* 22 (1997), 3-13쪽.
- _____, *Deuteronomy* (AOTC 5) (Nottingham: Inter Varsity PPress, 2002).

- McKenzie, S. L., *The Chronicler's Us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SM, 33), (Atlanta: Scholars Press, 1985).
- _____, *The Trouble with Kings: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King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VTSup, 42), (Leiden: Brill, 1991).
- _____, "The Books of King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 L. McKenzie/M. P. Graham (eds.), *The History of Israel's Traditions: The Heritage of M. Noth* (JSOTSup 18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80-307쪽.
- Mitchell, G., *Together in the Land: A Reading of the Book of Joshua* (JSOTS 134), (Sheffield: JSOT Press, 1993).
- Nelson, R. D., *Deuteronomy* (OTL),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Nielsen, E.,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Mohr Siebeck, 1995).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Halle: Niemeyer 1943), E. W. Nicholson (옮김),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마틴 노트, 「전승사적 연구들」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 _____, *Das Buch Josua* (HAT 1/7), (Tübingen: J.C.B. Mohr, 19532).
- Olyan, S. M., *Ashera and the Cult of Yahweh in Israel*(SBLMS 34), (Atlanta, GA: Scholars, 1988).
- Perlitt, L., *Bundestheologie in Alten Testament* (WMANT 3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Porter, J. R., "Old Testament Historiography," G. W. Anderson(ed.),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Essays by Members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Oxford: Clarendon Press, 1979), 125-162쪽.
- de Pury, A./T. Römer/J. D. Macchi (eds.), *Israël construit son histoire: L'historiographie deutéronomiste à la lumière des recherches récentes* (Le Monde de la Bible 34), (Geneva: Labor et Fides, 1996). (영어 번역) *Israel constructs its History: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in Recent Research* (JSOTSup 3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Römer, T.,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5).
- Scheuring, L. S./S. L. McKenzie(eds.), *Those Elusive Deuteronomis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Seow, C.,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Kings," L. E. Keck (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Vannutelli, P.,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31-34).
- Van Seters, J.,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983).
- _____,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4).
- Veijola, T., *Die ewige Dynastie. David und die Entstehung seiner Dynastie nach der deuteronomistischen Darstellung* (STAT.AASF 193), (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75).
- Vervenne, M., "The Question of 'Deuteronomic' Elements in Genesis to Numbers," F. G. Martnezemf (eds.),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VTSup 53), (Leiden: Brill, 1994).
- Wellhausen, J.,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1898, 19056).
- Westermann, C., *Die Geschichts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ab es ein deuteronomistisches Geschichtswerk?* (TBü 87),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4).
- de Wette, W. M. L., *Beiträge zur Einleitung in das Alten Testament* vols. 2, (Halle: Schimmelpfenning, 1997).
-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검색어

마틴 노트

소위 신명기 사가

신명기

왕들

제의 개혁

투고일: 2009년 5월 8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Requirement of Cult Reform in Deuteronomy and Kings' Reform

Eun-Woo Lee, Ph.D.

Full Time Instructor, Old Testament Departmen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escriptions of cult reform in Dtn 7: 5: 12: 3 and them in Exodus, Judges, Kings, and Chronicles, to examine the feature of each description, and to investigate if they are deuteronomistic or not. For this purpose, this author will compare and analyse parallel texts requiring the destruction of foreign cultic materials. Therefore, the main method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vocabularies in these texts. The main objects of this study are nouns related with undesirable cultic entities and verbs related with the demolition of them.

The texts of the destruction of cultic installations in Kings have verbal correspondences with the counterparts in Deuteronomy. However, the fact that similar expressions appear in Exodus, Judges, and Chronicles, makes this study more complicated. Some scholars try to link them in Exodus with Deuteronomist, but it is not easy to decide the order of similar texts in Exodus and Deuteronomy. The explanation on the texts of cultic reform in Chronicles is not so simple as well. It is too simple to think that Chronicles was influenced by Deuteronomist(s), because these expressions and vocabularies are much more related with the

former.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llel texts of destruction of cultic entities in Kings and Chronicles seems to be much closer than that between Deuteronomy and Chronicles. It is also problematic to put Gideon's cultic reform story into the context of Deuteronomis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xpressions and vocabulary in these texts seems to make it irrelevant to ascribe these texts to the Deuteronomist. Through this study, we will understand the texts on the reform of cult better and closer. Furthermore, we can grasp one of the weak points of those scholars who still support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theory.

Keywords

Cultic Reform
Deuteronomy
Kings
Martin Noth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ian